

# 강진 마량~제주, 쾌속선 취항 청신호

## 국민권익위 “운송사업 면허 반려는 부당” 군, 목포항만청에 조만간 면허 재신청키로

강진 마량~제주간 여객선 취항에 청신호가 켜졌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지난 29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오준근)에서 강진 마량~제주간 여객선 운송사업 면허 반려 건은 부당하다며 정상적으로 면허를 내주라는 인용(認容)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강 군수는 “마량항은 도내 어느 항구보다 육지에서 접근성이 가장 뛰어나 배길이 열리면 제주도로 가는 가장 가까운 배길 부각될 전망”이라며 “전국의 많은 관광객에게 가장 짧은 시간에 제주를 방문할 수 있는 쾌속선 취항 추진은 물론 사회간접시설과 관련한 인프라를 조속히 구축해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강진군과 (주)동승레저는 지난해 4월 강진 마량항~제주항간 정기여객선 운항사업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목포 지방해양항만청에 강진 마량~제주간 여객선 운송사업 면허를 신청했다. 하지만 목포 항만청은 같은해 7월 인접 지자체 사업자와 동일항로로 판단된다며 서류를 반려했다. 이에 군은 행정심판을 제기하고, 판단을 기다려왔다. 군은 이번 결정에 따라 군은 (주)동승레저와 빠른 시일내에 여객운송사업 면허신청을 할 계획이다. 이미 제주항 선석은 확보된 상태이다. /중부취재본부=남철희기자 chou@

이와 함께 군은 신 해양 관광시대를 활짝 열어 가기 위해 신마량항의 완공시기를 1년여 앞당겨 2014년까지 개항하고, 마량항의 경관 개선은 물론 비좁은 기반시설을 확장해 관광객들의 접근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또 마량항에 주말 수산타운을 건립하고, 강진~마량간 국도 23호선 조기 확장 등으로 마량~제주간 여객선 취항 준비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한편 마량항은 고대부터 제주와 거리의상으로 가장 짧은 사람 왕래는 물론 제주 말을 한양으로 보내던 역사 깊은 항구이다. /중부취재본부=남철희기자 chou@



은은하고 세련된 멋 ‘한지 찻상’ 곡성지역 여성농업인들이 최근 군 농업기술센터에서 한지공예를 익히고 있다. 총5회 진행된 한지공예 교육은 한지에 대한 기초적인 이론교육과 수납꽃이·찻상 등 생활에서 유용한 한지 공예품을 만드는 과정으로 진행됐다. <장흥군 제공>

## 태풍 영향 동북취수장 2시간30분 정전 수공-광주시 협력, 단수위기 신속대응

한국 수자원공사(K-water)와 광주광역시 수공이 태풍 영향에 대응한 신속한 공동 조치로 단수위기를 넘겼다. K-water 전남지역본부(본부장 신승운)에 따르면 지난 28일 한반도를 강타한 태풍 ‘볼라벤’의 영향으로 지방 상수원인 동북 취수장에 2시간 30분가량 전기가 끊기며 광주시에 수도물을 공급하는 용연 정수장과 지원정수장 등이 원수를 취수하지 못해 정수 생산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 사실상 광주시 일부 지역에 생활용수 공급이 중단될 위기에 처한 것. 이 같은 소식을 접한 전남지역본부는 비상 연계관로를 활용해 곧바로 주암댐 광역상수도 원수를 용연 및

지원 정수장에 대체 공급, 자칫 일어날 뻔했던 단수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다. 이러한 기관간 협력체계는 지난 6월 K-water를 중심으로 광주광역시 등 전남지역 9개 수도사업자가 ‘수도물 공급 위기대응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했기에 가능했다. 이후 K-water와 각 지자체는 지방상수도 시설과 광역상수도 시설을 이어주는 비상연계관로를 구축했다. 신승운 전남지역본부장은 “지속적으로 광주시 등 관련 지자체와 상호협력 체계를 더욱 굳게 해 도내에서 단수사고가 한 건도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 현대와 전통타악이 만나 흥겨운 한판

장성문예회관 개관1주년 9월4일 ‘두드락’공연

장성군은 장성 문예회관 개관 1주년을 맞아 9월 4일 장성문예회관 소공연장에서 1주년 축하행사와 함께 현대와 전통 타악이 어우러진 비언어 퍼포먼스 ‘두드락’ 모듬북 특별공연을 선사한다. 사업비 일부를 복권기금에서 지원받는 이번 ‘두드락’ 공연은 장성 문예회관의 우수공연 프로그램으로 선정, 풍물을 10~20년간 전공한 전문 연주자들이 관객들에게 흥겨운 무대를 선사할 예정이다. 공연 예매는 지난 28일부터 전화 또는 방문 예약 및 당일 관람

객 입장권 발행을 통해 입장할 수 있다. 입장료는 무료이며 지정 좌석 190석에 대해 선착순으로 접수를 마감한다. 군은 지난해 9월 문예회관을 소공연장 위주로 개장, 매일 1~2회씩 국악에서부터 마술쇼, 콘서트 등 다양하고 수준 높은 공연을 선보였다. 또 전국 공직자를 대상으로 청렴문화 체험교육을 추진, 소공연장을 청렴한 선현의 청렴사상을 배우는 교육장으로 문예회관의 활용도를 높이고 있다. /중부취재본부=김용호기자 yongho@

## 담양 한재중, 글로벌 리더 양성 앞장

군, 예산 지원 원어민 강사 채용 영어특성화 교육

예산 부족으로 원어민 영어강사 자체 채용이 힘들어 고민하던 담양 한재중학교(교장 안병창)가 담양군의 예산 지원으로 지속적인 영어 특성화 교육을 이어 갈 수 있게 됐다. 교과부 지정 전일학교인 한재중은 그동안 원어민 강사를 활용한 영어수업을 진행함은 물론 학생들의 교내 생활과 각종 체험활동을 원어민 교사와 함께하면서 자연스럽게 외국어의 사소통 능력을 기를 수 있어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하지만 올해 들어 교과부 지정 전일학교에 재지정되기는 했으나 예산이 부족해 원어민 강사 채용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이에 담양군과 전정철 군의회 의장이 전일학교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을 약속해 계속해서 원어민 영어 교사를 채용할 수 있게 됐다. /중부취재본부=정재근기자 jgg@

안병창 교장은 “앞으로 한재중 학생들이 미래사회의 글로벌 인재로 자라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가르치겠다”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정재근기자 jgg@



# 전 북

## 70대 선장 기지로 2차 사고 막았다

### 태풍 피항 중 닻줄 끊어진 여객선 정박

태풍 ‘볼라벤’의 북상에 따라 피항한 여객선의 닻줄이 끊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으나 70대 선장의 신속한 대처로 충돌 등 2차 사고를 예방했다. 29일 군산 해양경찰서에 따르면 태풍 ‘볼라벤’이 전북 서해안까지 접근한 28일 오전 9시40분께 부안군 격포항에 피항 중이던 파장급 카훼리호(228t급)의 닻줄이 끊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격포항에는 태풍을 피해 인근지역 200여척의 선박이 이미 피항중이어서 여객선이 표류했다면 2차 대형 충돌사고로 이어질 상황이었다. 사고가 나자 선내에 있던 송주길(70) 선장은 선원 4명과 함께 여객선을 격포항 밖으로 돌려 방파제를 빠져나가 파도와 싸웠다. 송 선장이 파도와 싸우는 동안

군산해경 변산파출소와 운항관리실, 여객선사는 격포항에 피항 중인 여객선을 정리해 여객선이 안전하게 정박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했다. 격포항 앞바다에서 1시간여 동안 항해하던 여객선은 이날 오전 11시께 다시 격포항에 안전하게 도착했다. 송 선장은 “사고 당시 바다 쪽의 파도가 높지 않아 충돌사고를 막고자 배를 격포항 밖으로 돌렸다”면서 “피항 중에도 엔진을 계속 켜놓고 있어 신속하게 사고에 대처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대형상선 20년 경력의 송 선장의 신속한 판단과 관계기관의 적절한 조치로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참사를 막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 숲·별·아름다운 선율과 휴식하기

### 정읍 산호수마을, 9월 1~9일 ‘여름따기 축제’

### 음악회·자연캠핑·음식장터 등 산촌생활 만끽

해발 500m 산촌마을에서 숲과 별빛, 아름다운 선율과 함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마을축제가 열린다. 다양한 농·산촌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농촌체험 휴양마을인 정읍시 산내면 산호수 마을 주민들은 ‘숲과 밤하늘의 별 체험’을 주제로 스스로 기획하고 준비한 ‘2012 산호수마을 여름따기 축제’를 9월 1일부터 9일까지 9일간 마을 일원에서 연다. 이번 축제는 농식품부가 농촌체험마을 주민 스스로 마을의 자원을 찾아 축제소재로 발굴해 축제화함으로써 주민화합과 마을 만들기 동기강화를 위해 국비 공모사업으로 실시한

‘2012 농·어촌 축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개최된다. 이번 축제는 ▲숲 해설과 명상, 공작체험 ▲해발 500m 해질녘 산중노을과 함께 진행되는 산중음악회 ▲해발 650m 산중 별보기 체험(천문여행) ▲1박 2일 자연캠핑 등 숲과 여름을 테마로 한 4개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또한 마을주민이 직접 생산한 농·특산물 특판행사와 함께 마을 부녀회에서 주민들이 직접 생산한 친환경 농산물을 재료로 ‘산호수마을 음식장터’를 운영, 맛있고 안전한 먹거리도 선보인다. 이번 축제는 산 정상에서 마을중앙

을 가로질러 흐르는 계곡을 중심으로 고즈넉한 산호수 숲길을 산책할 수 있고, 전망좋은 마을 찻집에서 여유를 즐길 수 있다. 양떼목장을 거닐며 도시에서는 느낄 수 없는 산촌생활의 색다른 맛도 만끽할 수 있다. 첫째 날인 1일 오후 6시에는 행사의 시작을 알리는 ‘숲속 음악회’가 개최된다. 이날 음악회는 ‘가야금 병창’, 아의 피아노 연주와 성악, 알프스 혼과 카우보이 연주를 선보인다. 한편 정읍시 산내면 중성리 산호수마을은 천혜의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옥정호 경관과 마을의 산과 숲이 어우러진 해발 500m 이상에 위치하고 있다. 마을주민이 직접 운영하는 8개소의 고급펜션이 마을 내에 단지를 이루고 있어 사계절 휴양명소로 각광받고 있다. /전북취재본부=박기섭기자 parkis@

## 단 신

### 전주평생교육원, ‘몽실언니’ 독후감 공모

전주시 평생교육원(원장 성하준) 송천도서관은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개월간 2012 ‘한도서관, 한 책 읽기 운동’의 선정 도서인 ‘몽실언니’를 주제로 시민 독후감을 공모한다. 공모부문은 초등부, 중·고등부, 일반부 등 3개 부문으로 나뉘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이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원고 매수는 ▲초등부 원고지 5매 이상(A4 1매 이상) ▲중·고등부 원고지 8매 이상(A4 2매 이상) ▲일반부 원고지 10매 이상(원고지 2매 이상)이다. 문의(063-278-9403)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 정읍 쇠고을시장, 통합안전시스템 구축

정읍지역의 대표적인 전통시장인 쇠고을 시장에 오는 11월까지 첨단기술을 접목한 통합 안전 관리 시스템이 구축된다. 시는 안전한 시장을 만들기 위해 상인회, 경찰서, 소방서, 사업자와 안전시스템 구축을 위한 협의를 마치고 방법·방재·다목적

방송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김생기 시장은 “사업이 끝나면 시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상황을 한눈에 살펴 관계기관과 비상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고 시장 이용객에게 다양한 서비스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북취재본부=박기섭기자 parkis@

### 남원 ‘춘향이도령길 문화축제행사’ 취소

오는 9월 1~2일 남원~전주간을 잇는 뒷밭재 솔바람길 등지에서 열릴 예정이던 ‘춘향이도령길 문화축제행사’가 취소됐다. 남원시 관광발전협의회는 “태풍 ‘볼라벤’ 피해로 인해 춘향이도령길 문화 축제행사를 취소했다”고 29일 밝혔다.

협의회는 ‘사랑의 길, 자연과 예술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축제를 개최, 숲속 음악회를 비롯해 팔러비즈공예, 다육이 식물심기, 캐릭터 우드, 캐릭터 티셔츠 만들기 등 체험행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전북취재본부=백성기자 bs8787@

### 김제 심포권역, 벤치마킹 선진지 견학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김제시 진봉면 심포권역 주민들이 최근 권역 벤치마킹을 위해 지난 27일 강원도 등 5개 권역을 방문했다. 주민 40여명은 환경친화적 개발경역의 대표적 사례인 단양 한

드미 마을을 비롯해 강릉 복사꽃마을, 평창 물골이 권역 등을 차례로 방문했다. 이번 선진지 견학을 통해 사업안 구상·체험프로그램 개발 등 운영관리 노하우를 전수받았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 도내 학교시설 볼라벤 피해 5억 추산

### 17개 학교 지붕 마감재·유리창 등 파손

15호 태풍 볼라벤으로 인한 전북 도내 학교의 피해액이 28일 오후 3시 현재 5억여 원으로 추산됐다. 강풍으로 인한 지붕 마감재 파손이 가장 많았다.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태풍 ‘볼라벤’의 강풍으로 인해 도내 총 17개 학교의 지붕 마감재 및 유리창 파손, 담장 전도, 수목 쓰러짐 등 피해가 잇따랐다. 전체 피해건수는 60여건에, 피해액은 5억여 원으로 추산된다. 부안에 위

치한 전북 해양수련원은 지붕마감재가 파손돼 700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지역별로 보면 ▲전주시 소재 학교 1억4000여만 원 ▲고창 소재 학교 1억5000만 원 ▲부안 소재 학교 8000만 원 순으로 피해가 발생했다. 도교육청은 29일부터 현지 조사를 통해 정확한 피해액을 산정하는 한편 긴급 복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비비를 통해서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전북-U턴기업 MOU... 주얼리 사업 도약 전북도는 29일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과 김원주 도지사, 구본항 재중국 한국공예품협회 회장(한신공예), 주얼리 기업 14개사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U턴기업 MOU 체결식을 가졌다. 연합뉴스